

초등학생의 우울과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최은실 방희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우울과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충청남도 소재 3개 초등학교의 4-6학년 54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선행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우울과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계 간의 가능한 경로와 역할에 대한 가설적인 모형이 제시되었고, 이론적 모형들의 타당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우울,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은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래관계기술은 남아에 비해 여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우울,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계의 각 요인 간의 관련성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 우울과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이 부분 매개하는 간접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우울과 또래관계 간의 직접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대안 모형의 적합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의 하위요인 중 신체적 증상관련 요인이 또래관계와 관련성이 낮음을 고려하여 모형에서 제외시켰을 때 더 높은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우울, 정서인식, 정서표현, 또래관계, 매개 모형

우울은 인간이 성장하면서 건강한 사람들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정서이며, 동시에 지각, 판단, 기억, 인지, 사고, 태도 등에서부터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측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부정적인 상태이다(Joiner, Alfano & Metalsky, 1993). 아동기에 독립된 우울증이 존재

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 DSM-III (APA, 1980) 이후 공식적으로 소아기에도 우울증이 존재함이 인정되었으며 우울증상의 양상이 비록 연령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성인기의 우울증에 대한 진단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DSM-IV-TR(APA, 2010)에 의하면

* 교신저자: 방희정, E-mail: hjbang@ewha.ac.kr

대표적인 정서관련 장애로 규정되는 우울 장애는 평생 유병율이 15-18%에 이르며, 임상적 진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준임상적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평생 유병율은 훨씬 높다 (Barrett, Barrett, Oxman, & Gerber, 1988).

아동기 우울의 특성을 살펴보면, DSM-IV-TR(APA, 2010)에서는 신체적 호소, 과민한 상태, 사회적 위축과 같은 증상이 소아에게서 흔하며, 정신 운동 지체, 지나친 수면과 망상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흔하다고 한다. 김은정과 오경자(1992)는 6세-12세 미만의 아동기는 일종의 전환기로 그 전반기에는 슬픔, 무기력과 같은 정서적 우울감을 경험하고,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그 후반기에는 점차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특징적인 죄책감, 자기비하, 자아존중감의 저하 등의 인지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또한 성인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은 명백한 자아존중감의 저하, 죄책감등이 나타나는 것은 후기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아동기의 우울증 유병율은 6-12세 아동의 경우 약 2-3%의 유병률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으며 (Birmaher, Ryan, Williamson, Brent, Kaufman, Dahl, Perel, & Nelson, 1996), 우울증의 성비는 사춘기 이전은 소녀보다 소년에서 우울증이 더 많거나 비슷하며 사춘기 이후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여자에게 더 빈번하다(Nolen-Hoeksema & Girgus, 1994). 이런 우울은 청소년기, 성인기의 우울증의 전조가 될 수 있는데, Aronen 과 Sojininen(2000)은 아동기에 우울을 보이는 경우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높은 우울, 낮은 자존감, 부적응적인 기능을 한다는 결과를 보이며, 아동기 우울이 성인기의 우울을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또한 아동기에 우울증의 진단을 받은 환자를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추적했을 때 우울 증상의 빈도, 자살기도,

양극성 장애의 발병률이 일반 인구에 비해 높고, 사회 적응 문제 역시 많았다는 보고(홍강의, 2005)를 고려할 때 아동기에 나타나는 우울이 단순히 발달 과정 중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만성적인 질환일 가능성이 추정된다.

이러한 우울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에도 아동기부터 나타나며 사춘기를 전후해서 급격히 증가하여 청소년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전형적인 심리적 부적응의 하나이다(우희정, 최정미, 2004). 아동 청소년기의 우울은 학업 및 또래관계 문제, 반사회적 행동, 약물 남용, 가출, 사회적 철회 등의 이차적인 심리·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켜 (Angold, Costello, & Erkanli, 1995) 아동 및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발달과업의 달성을 저해한다. 이들은 흥미상실과 초조감, 주의집중의 어려움, 정신-운동지체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 및 또래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수동적이거나 회피적인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또한 우울은 지속적 속성이 강하고 전반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아, 임상적인 우울을 지닌 아동과 청소년들은 학업수행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Hammen, 1990). 특히 우울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성 있게 지지되어 왔는데(김현진, 한종철, 2004; 윤현수, 오경자, 2004), 아동 및 청소년기의 중요한 대인관계인 또래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아영과 이명희(2008)의 연구에서 우울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은 사회적 유능감이나 대인관계 형성능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서 교우관계에 부적응을 초래하고,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박은조(2000)의 연구에서도, 우울 집단이 비우울

집단에 비해 또래관계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우울 집단은 더 높은 고독감을 느끼고,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며 더 높은 관계욕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의 또래관계 형성과 유지는 가정에서 사회로의 적응과 발달을 이어주는 중간 단계이며, 또래관계는 아이들의 성공적인 사회관계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적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적응과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Grusec & Lyton, 1988). 하지만, 아동기에 우울로 인해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아동의 현재 적응뿐만 아니라 이후 사회적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울 아동의 대인관계, 특히 또래관계의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아동기의 또래관계 기제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래관계의 기제를 규명하면,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우울 아동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또래관계의 기제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래관계의 기제를 이해하는 데서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원만한 대인관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이다. 즉,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Salovey, Brackett, & Mayer, 2004; Salovey & Mayer, 1990; 김선주, 2002; 심혜숙, 왕정희, 2001; 권진희, 2006). 정서의 적절한 인식과 표현능력은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 및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등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Denham, Zoller, & Couchoud, 1994;

Nowicki & Duke, 1994; DePaulo, 1992; 이은상, 2003)

그렇다면, 대인관계의 핵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정서인식과 표현에 대해 알아보고 정서인식과 표현이 대인관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서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Solovey, Mayer, Goleman, Turney와 Palfai(1995)는 정서인식이 자기 내부의 정서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능력으로, 정서인식의 과정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서중추의 반응을 언어중추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정서 하나하나의 상태를 확인해가는 심리적 과정이라고 하였다. 자신의 정서에 대해 잘 인식하는 개인은 자율적이고 좋은 자아경계를 가지며,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으며, 자신의 정서를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적응적이며, 신체적,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Kring, Smith, & Neale, 1994).

정서인식 능력이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일관성 있게 지지되고 있는데, 정서인식을 명확하게 할수록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교 교사적응, 학교공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황인희, 2007; 권성은, 2003; 이연이, 2007), 한유진(2006)의 연구에서도 자기 자신의 정서인식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었으며, 자기정서인식과 타인정서인식이 부정적 또래관계의 가장 강력한 예언변인이었으며 29.7%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와 갈등이나 의견충돌을 빚지 않고, 서로 잘 어울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서와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정서의 적절한 인식은 감정에 대한 피드백을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정서를 유발하는 사건과 정서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정서 표현능력 또한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과 관련이 높는데, 정서를 잘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타인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DePaulo, 1992).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심리적 안녕감과 신체적 건강과 연결되고, 정서 표현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정서적 지지를 받기 힘들고 결국 개인의 신체 혹은 심리적 건강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기능, 즉 대인관계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은상, 2003). 또한 정서 표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회피하려는 성향이 높으며(Emmons & Colby, 1995), 심리적 차원의 안녕감 저하뿐만 아니라 신체적 질환을 더 많이 보고하고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화, 1997).

이처럼 적절한 정서인식과 표현은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매우 유용하며(Denham, Zoller, & Couchoud 1994), 또래관계를 맺는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정서인식과 표현 능력은 사회적 유능성, 또래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심리사회적 적응의 지표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Nowicki & Duke, 1994; 권진희, 2006; 김선주, 2002; 심혜숙, 왕정희, 2001). 자기가 느끼는 정서가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고, 이를 적절히 조절하여 자신의 내적, 상황적 요구에 맞도록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안녕에 매우 중요한 측면이며, 이는 중요한 관심사에 대한 자각을 증진시키고, 문제해결 노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서표현은 의사소통 역할을 하며 사회적 지지를

가용하게 하여 적응을 돕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울과 정서 인식 및 표현 능력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우울은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의 저하를 가져오며,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에 주의를 집중하여 정확한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적절히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도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Feldman, White & Lobato, 1982; Goleman, Kraemer & Salovey, 1996).

우울과 정서인식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울한 사람은 우울하지 않은 사람보다 정서 능력 검사인 TMMS(Trait Meta-Mood Scale) 검사에서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정서에 대한 주의 능력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정서 행동문제를 지닌 청소년들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정서인식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이나 불안정한 가정의 자녀들의 정서 인식이 부정확함을 보고한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Reichenbach & Masters, 1983). 특히 자극의 선택이나 자극의 인식 단계와 같은 정보처리의 초기 단계에서의 결함이나 편향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Williams, Watts, MacLeod, & Mathews, 1997), 우울한 사람은 정보처리의 초기 단계인 얼굴 표정 정서 인식에서 부정확한 정보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류경희, 오경자, 2008), 우울한 아동은 전반적 비언어적 정서인식에서는 정상아동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불쾌한 자극에서 불쾌한 표정과 음성을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배도희, 조아라, 이지연, 2004)

또한 우울은 정서표현 능력과도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데 우울한 사람은 자신의 정서표현을 어려워하며(Penza-Clyve & Zeman, 2002)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의 표현과 억압 사이에서 갈등

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자신의 정서를 명료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표현을 방해하여 정서의 표현과 억압 사이에서 갈등을 유발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임진현, 이훈진,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후기인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의 우울, 정서인식 및 표현, 또래관계기술 각각에 대해 살펴보고 성차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울이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유발시키고 유지시키지만 또래관계의 핵심적인 기제인 정서인식과 표현 능력이 우울한 상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따라 그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 현재까지는 우울,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계가 서로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이 지적되어오고 있으나 이 세 가지 요인들 간의 역동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하기 위해 우울 뿐 아니라 정서인식 및 표현의 매개효과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며,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후 우울 아동을 위한 치료적 접근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3개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초등학생 599명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 중에 집단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 즉시 수거하도록 하였다. 총 599명중 54명의 자료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54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학년은 4학년이 149명(27.3%), 5학년이 169명(31.0%) 6학

년이 227명(41.7%)이었고, 남학생 260명(47.7%)이었고 여학생이 285명(52.3%)이었다.

측정도구

우울

(Children Depression Inventory : CDI)

본 검사는 Kovacs와 Beck(1977)이 아동기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번안, 표준화한 것을 사용한다. 7세-17세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실시할 수 있는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해 0,1,2점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총 27개 문항으로 총점의 범위는 0-5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우울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낸다. 하위 요인으로는 김은경, 양재원, 정유숙, 홍성도와 김지혜(2005) 연구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일반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3요인 구조로 부정적 자기상 요인, 대인관계문제 요인, 부정적 기분 및 신체적 증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자기상 요인 문항으로는 문항 2 '나에게 제대로 되어 가는 일이란 없다', 문항 3 '나는 모든 일을 못한다' 등이 있으며, 대인관계문제 요인 문항으로는 문항 12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문항 22 '나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 등이 있으며, 부정적 기분 및 신체적 증상 요인 문항으로는 문항 1 '나는 항상 슬프다', 문항 16 '나는 매일 밤 잠들기가 어렵다' 등이 있다. 본 우울 척도는 자기 보고용 척도인데, 이는 우울증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상태가 중요하고(신민섭, 김민경, 1994), 후기 아동기가 발달적으로 자신의 정서적 상태를 인지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내적 합치도는 조수철과 이영식(1990)에서는 .88, 재검사 신뢰도는 .82로 나타났으며, 김은경, 양재원, 정유

숙, 홍성도와 김지혜(2005)에서는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9로 나타났다.

정서 인식 및 표현 척도 (The Emotion Expression Scale for Children : EESC)

정서 인식과 정서 표현을 측정하는 도구로 Penza-Clyve와 Zeman(2002)가 개발한 EESC(The Emotion Expression Scale for Children)를 변안해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만 9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이시기는 아동 중기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정서 조절 패턴의 개념이 발전되고 안정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서인식과 정서표현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연령대이다(Cole & Kaslow, 1988; Penza-Clyve & Zeman, 2002).

본 척도는 명확한 정서인식과 표현의 2가지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형 척도로, 정서인식의 부족 요인 8개 문항과 정서 표현의 어려움 요인 8개 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 인식의 부족 문항으로는 문항 9 '나는 종종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모른다', 문항 15 '나는 내가 화난 이유를 종종 잘 모른다' 등이 있으며, 정서표현의 부족 문항으로는 문항 7 '내가 화가 났을 때, 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두렵다', 문항 16 '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보여주는 것이 힘들다' 등이 있다. 각 문항에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것에 1(전혀 그렇지 않다: not at all true), 2(거의 그렇지 않다: a little true), 3(다소 그렇다: somewhat true), 4(대체로 그렇다: very true), 5(아주 그렇다: extremely true)까지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척도 사용을 위해 본 연구자는 심리학 전공 박사 1인과 일차 번역을 실시한 후, 그 자료를 국내

거주하고 있으며 10년이상 미국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행한 2명의 교수들의 감수(번역, 역번역)를 통하여 재수정한 번역 안을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용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EESC)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연구 대상자들의 자료에 대해 α 계수, Spearman-Brown 방식의 반분신뢰도 계수를 구했으며, 문항-총점 간 상관을 살펴보았으며, 타당도 검증을 위해 SAS가 제공하는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통요인분석 시 공통분(Communality)의 초기값은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다중상관계곱치)로 지정하였으며, 요인 간 상관($r=.67$)을 토대로 기초요인구조의 회전방법을 결정한 후, 단일 주축 분해와 사각 회전방식(oblique rotation)을 적용한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사각 회전에 사용된 방법은 Harris-Kaiser의 orthoblique 방식이었으며 HKP(Harris-Kaiser 계수)는 0.0이었다.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에는 SAS 9.2가 사용되었으며 그 외의 다른 분석에는 SPSS 15.0이 사용되었다.

그 결과, 요인 부하량이 낮거나 서로 다른 요인으로 묶이는 네 문항을 확인하여 문항 삭제 과정을 거쳤다. 문항 삭제 후 남은 총 12문항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재 실시하였고 그 결과 2요인으로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하위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의 요인 계수도 적절한 수준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척도의 구인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0,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서인식 부족 요인이 .70, 정서표현 부족 요인이 .70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척도

본 검사는 양윤란과 오경자(2005)가 초등학생 4

학년에서 중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또래관계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로, 총 19문항으로 주도성과 협동/공감의 두 요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주도성 요인으로는 문항 3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놀이를 친구에게 함께 하자고 말한다’, 문항 4 ‘처음 만난 아이에게 내가 먼저 말을 건다’ 등이 있으며, 협동/공감 요인으로는 문항 11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거나 놀 때, 게임이나 놀이 규칙에 대한 친구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문항 19 ‘게임이나 운동, 놀이의 규칙을 지킨다’ 등이 있다. 각 행동의 빈도를 묻는 4점 척도 방식(‘전혀 없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을 사용하였으며,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4-.81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1,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주도성 요인이 .86, 협동/공감 요인이 .87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SPSS 15.0을 이용하여 기술적인 통계 부분을 살펴보았고,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각 측정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을 알아보았고, 주요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AMOS Version 7.0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성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합도 지수가 표본크기에 크게 영향 받지 않아야 하며, 자료를 충분히 설명하면서도 간명성을 추구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과 자료간의 일치정도를 나타내주는 χ^2 적합도 지수와,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로 모

형을 평가하고자 한다. 각 적합도지수의 대략적인 기준은 CFI나 TL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89).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

1)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와 차이검증

우울,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계기술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성별 평균차이검증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우울의 전체 평균 점수는 13.23($SD = 8.30$)이었으며,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의 전체 평균 점수는 28.36($SD = 7.55$), 또래관계기술 척도의 전체 평균 점수는 49.81($SD = 10.63$)이었다.

우울,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계기술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각 척도에 대한 성차를 분석한 결과, 우울 총합의 성별에 따른 평균 점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t = -.084$, n.s.), 하위요인별로도 부정적 자아상 요인($t = .684$, n.s.), 대인관계문제 요인($t = -.401$, n.s.), 신체적 증상 및 부정적 기분 요인($t = -.146$, n.s.)의 성별에 따른 평균 점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 총합의 성별에 따른 평균 점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t = .340$, n.s.), 하위요인별로는 정서인식 부족 요인($t = -.620$, n.s.)과 정서표현 부족 요인($t = 1.695$, n.s.)의 성별에 따른 평균 점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 편차 및 성별 평균 차이 검증 결과

	전체(N=545)	남자(N=260)	여자(N=285)	성별 평균 차이 검증 <i>t</i>
	<i>M(SD)</i>	<i>M(SD)</i>	<i>M(SD)</i>	
우울(CDI) 총합	13.23(8.30)	13.20(7.80)	13.26(8.75)	-.084
부정적 자아상 요인	6.58(3.85)	6.73(3.67)	6.47(4.02)	.684
대인관계문제 요인	2.94(2.41)	2.89(2.35)	2.98(2.47)	-.401
신체적 증상 및 부정적 기분 요인	3.24(2.91)	3.22(2.81)	3.26(3.00)	-.146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 총합	28.36(7.55)	28.47(7.27)	28.25(7.80)	.340
정서인식 부족 요인	15.25(5.10)	15.10(4.87)	15.38(5.31)	-.620
정서표현 부족 요인	13.11(3.40)	13.37(3.43)	12.88(3.34)	1.695
또래관계기술 총합	49.81(10.63)	48.44(9.96)	51.05(11.09)	-2.882*
주도성 요인	20.91(5.74)	20.13(5.26)	21.63(6.06)	-3.075*
협동/공감 요인	28.90(6.01)	28.32(5.84)	29.42(6.11)	-2.160*

* $p < .05$

또래관계기술 척도 총합의 성별에 따른 평균 점수 차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t = -2.882, p < .05$), 하위요인별로도 주도성 요인의 평균 점수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t = -3.075, p < .05$), 협동/공감 요인의 평균 점수도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t = 2.160, p < .05$).

2) 주요 변인들의 상관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는 사용된 모든 측정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측정변수들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우울 총합과 또래관계기술 총합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유의미한 부적 상관($r = -.61, p < .01$)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 총합과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 총합은 유의미한 정적 상

관($r = .59, p < .01$)을 지니며, 정서인식 및 표현척도 총합과 또래관계기술 총합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r = -.57, p < .01$)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각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부정적 자기상 요인은 대인관계문제 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65, p < .01$)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자기상과 요인은 신체적 증상 및 부정적 기분 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63, p < .01$)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인관계문제 요인은 신체적 증상 및 부정적 기분 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62, p < .01$)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척도의 각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정서인식 부족 요인은 정서표현 부족 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56, p < .01$)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척도의 각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주도성 요인과 협동/공감 요인은 유의미한

표 2. 측정 변수들의 단순상관관계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 우울총합	-									
2. 부정적 자기상	.90**	-								
3. 대인관계문제	.94**	.65**	-							
4. 신체적증상 및 부정적기분	.86**	.63**	.62**	-						
5.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 총합	.59**	.50**	.52**	.52**	-					
6. 정서인식 부족	.57**	.49**	.50**	.50**	.93**	-				
7. 정서표현 부족	.45**	.36**	.42**	.41**	.83**	.56**	-			
8. 또래관계기술 총합	-.61**	-.58**	-.56**	-.45**	-.57**	-.53**	-.47**	-		
9. 주도성	-.51**	-.50**	-.50**	-.35**	-.51**	-.46**	-.46**	.90**	-	
10. 협동/공감	-.59**	-.56**	-.51**	-.47**	-.52**	-.51**	-.40**	.91**	.64**	-

** $p < .01$

정적 상관($r = .64, p < .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울의 각 하위요인들(부정적 자기상, 대인관계문제, 신체적 증상 및 부정적 기분)과 정서 척도의 각 하위요인들(정서인식 부족, 정서표현 부족)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각 하위 요인들 간 상관이 $r = .36 \sim .50$ 로 나타났다. 우울의 각 하위 요인들과 정서 척도의 정서인식 부족 요인과의 상관이 정서표현 부족 요인과의 상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우울의 각 하위요인들과 또래관계척도의 하위요인들(주도성, 협동/공감)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각 하위 요인들 간 상관이 $r = -.35 \sim -.56$ 로 나타났다. 우울의 각 하위요인들은 또래관계척도의 주도성 요인과의 상관보다 협동/공감 요인과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정서 척도의 각 하위요인과 또래관계척도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각 하위 요인들간

상관이 $r = -.40 \sim -.51$ 로 나타났다. 정서척도의 정서인식 부족 요인은 또래관계척도의 주도성 요인보다 또래관계척도의 협동/공감 요인과 더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척도의 정서표현 부족 요인은 또래관계척도의 주도성 요인이 또래관계척도의 협동/공감 요인보다 더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검증 결과

우울,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또래관계 간의 경로모형 설정 및 적합도 분석

우울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형 검증을 통한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가설에 따라 우울의 모든 하위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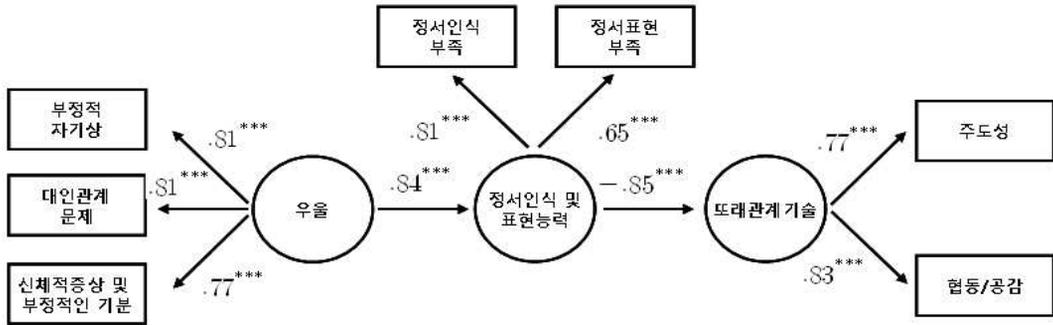


그림 1. 우울,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계기술의 완전매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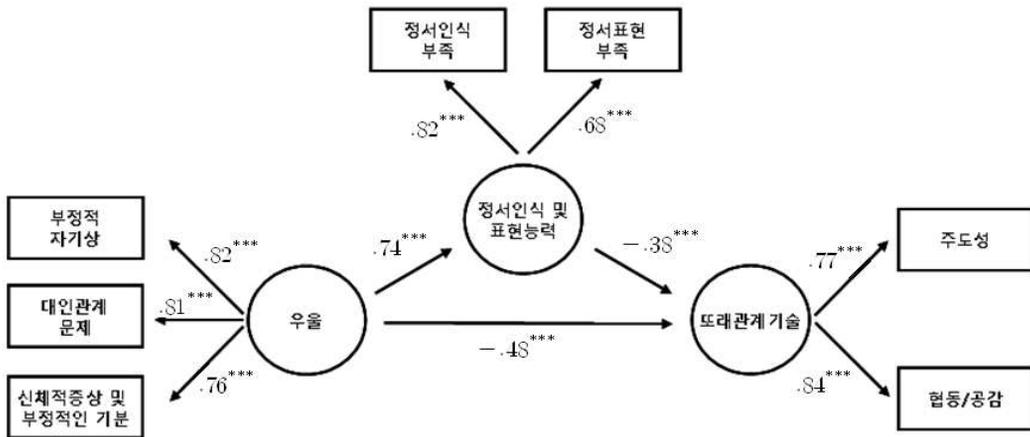


그림 2. 우울과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계기술의 부분매개 모형-대안모형1

이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을 매개로 하여 또래관계로 가는 경로 매개 모델을 설정하였다. 또한 우울과 또래관계 간의 높은 관련성을 고려할 때 우울이 바로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직접 경로를 추가하여 부분 매개 모델을 검증하였다.

그림 1에 제시된 것은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의 완전 매개를 설정한 연구 모형이다. 이 모형에 대한 타당도 검증 결과, 적합도 지수가 $\chi^2=75.51$, $df=12$, $p=0.000$; CFI=.963; TLI=.936; RMSEA=.099 로 적합도 지수가 보통(mediocre fit)인 모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우울의 모든 하위 요인이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을 매개로 하여 또래관계기술로 가는 경로와 우울이 또래관계기술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를 추가한 부분 매개 모델을 검증하였다. 이 모형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 모형에 대한 타당도 검증 결과, 적합도 지수가 $\chi^2=51.34$, $df=11$, $p=0.000$; CFI=.976; TLI=.955; RMSEA=.082 로 적합도 지수가 보통(mediocre fit)이며 완전매개 모형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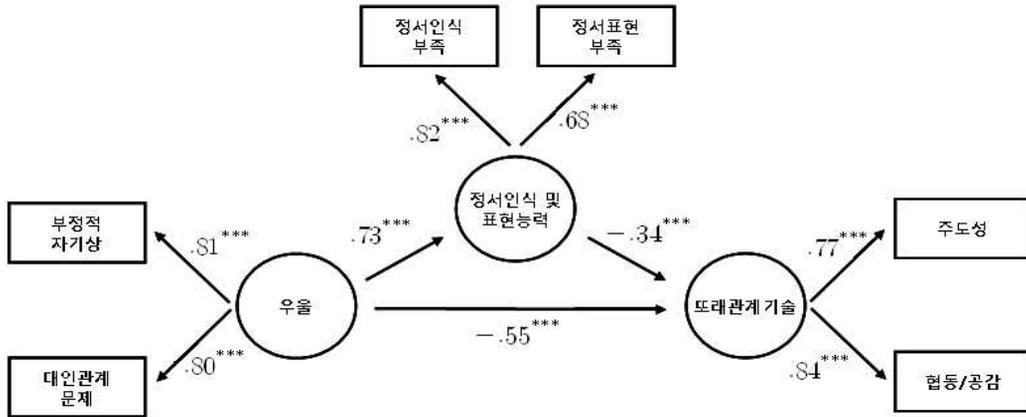


그림 3. 신체적 증상 및 부정적 기분 요인을 제외한 우울과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계기술의 부분매개 모형-대안모형 2

다음은 우울과 또래관계기술의 각 하위 요인 간 상관이 가장 낮은 우울의 하위 요인인 신체적 증상 및 부정적 기분 요인을 제외한 후, 우울과 또래관계기술을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이 부분 매개하는 모형을 검증해보았다. 신체적 증상과 정서 인식 및 표현의 어려움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은 많이 있어 왔다(Penza-Clyve & Zeman, 2002; 강상현, 손정락, 2004; 신현균, 2000). 하지만 신체화 증상과 대인관계기술 간의 관련성은 낮는데, 신현균(2006)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적 증상과 사회성 기술 및 또래 수용과 관련성이 매우 낮다($r = -.19 \sim -.24$)는 연구 결과가 있다. 본 연구의 각 하위요인별 상관에서도 신체적 증상과 또래관계척도 요인들 간의 상관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우울의 신체적 증상 및 부정적 기분 요인을 제외하고 우울이 또래관계 간의 관계에서 정서 인식 및 표현이 부분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모형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 결과 적합도 지수가 $\chi^2=20.481$ $df=6$ $p=0.000$; CFI=.989; TLI=.973; RMSEA=.067 로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가 나왔다.

표 3에 모형들의 적합도를 비교 제시하였다. 우울의 모든 요인을 포함한 완전 매개 모형에 비해 우울에서 또래관계기술로 가는 직접 경로를 추가한 부분 매개 모형이 적합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좋은 모형은 우울의 하위 요인인 신체적 증상 및 부정적 기분 요인을 제외한 우울에서 또래관계기술로 가는 직접 경로를 추가한 부분 매개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좋았다.

먼저 우울의 모든 요인을 포함한 부분 매개 모형의 매개 효과의 유의미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울 →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에 이르는 경로 a와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 또래관계기술에 이르는 경로 b는 유의했다. 매개 효과 ab의 검증은 MacKinnon, Warsi와 Dwyer(1995)가 활용한 Sobel(1982)의 방정식, $z\text{-value} = a*b / \sqrt{b^2 * SEa^2 + a^2 * SEb^2}$ 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a는 경로 a의 비표준화 계수, b는 경로 b의 비표준화 계수, $SE_{a\hat{}}$ 는 a의 표준오차 $SE_{b\hat{}}$ 는 b의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a = .996$, $SE_{a\hat{}} = .070$, $b = -.400$, $SE_{b\hat{}} =$

표 3. 모형 검증 적합도 지수 비교

모형	df	χ^2	CFI	TLI	RMSEA
1. 완전매개모형	12	75.51	.963	.936	.099
2. 대안 모형-1	11	51.34	.976	.955	.082
3. 대안 모형-2	6	20.48	.989	.973	.067

표 4. 대안 모형 1, 2의 경로 계수와 t 검증치 및 오차변량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t 검증치
대안 모형 1	우울->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996	.070	.743	14.33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또래관계기술	-.400	.088	-.384	-4.56
	우울->또래관계기술	-.667	.112	-.478	-5.98
대안 모형 2	우울->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981	.074	.731	13.14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또래관계기술	-.364	.087	-.343	-4.17
	우울->또래관계기술	-.779	.117	-.548	-6.66

.088 이었고, $Z_{ab} = -4.280$ 로 .05 수준에서 ± 1.96 보다 크므로 매개효과 ab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경로 a와 b가 유의하고 매개효과 ab가 유의하므로 매개모형은 지지되었다. 즉, 우울이 또래관계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다음은 우울의 신체적 증상 및 부정적 기분을 제외한 부분 매개 모형의 매개 효과의 유의미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울 →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에 이르는 경로 a와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 또래관계기술에 이르는 경로 b는 유의했고, 매개 효과 ab의 검증은 위의 공식을 이용하였다. $a = .981$, $SE_a = .075$, $b = -.364$, $SE_b = .087$ 이었고, $Z_{ab} = -3.810$ 로 .05 수준에서 ± 1.96 보다 크므로 매개효과 ab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경로 a와 b가 유의하고 매개효과 ab가 유의하므로 매개모형은 지지되었다. 즉, 우울이 또래관계

술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4에는 대안 모형 1과 2의 경로계수 및 t-검증치를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4, 5, 6학년년을 대상으로 우울,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계기술에 대해 각각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성차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우울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우울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우울이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의 변수 간 관련성에 초점을 두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이들 세

요인간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본 연구가 부재하였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우울요인과 정서인식 및 표현요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와 함께 논의점과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우울(CDI) 점수를 살펴 본 결과, 총점 평균 13.23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은경, 양재원, 정유숙, 홍성도와 김지혜(2005)연구의 결과인, 총점 평균 12.28점보다 약 1점 가량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장은진, 서민정과 정철호(2001) 연구 결과인 총점 평균 13.5점과는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실제 12-14점의 점수가 보고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는 8-10점의 점수가 보고되고 있다(Kazdin, 1981). 따라서 우울 척도(CDI)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를 통해 통계적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우울, 정서인식 및 표현, 또래관계기술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우울, 정서인식 및 표현에서는 남녀 간 성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울의 경우, 우울증의 성비는 외국의 경우, 사춘기 이전은 소녀보다 소년에서 우울증이 더 많거나 비슷하며(Nolen-Hoeksema & Girgus, 1994), 임지영(2005)에서 우리나라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용 우울척도 개발 연구에서 3개의 우울 척도에서 남녀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우울의 남녀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하위 요인에서도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서인식 및 표현척도의 경우 Penza-Clyve와 Zeman(2002)가 개발한 EESC(The Emotion Expression Scale for Children)를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원연구자의 연구에서도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EESC의 개발이 성인용 감정표

현불능증 척도를 기초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감정표현불능증 척도에서도 역시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는(이양현, 임효덕, 이종영, 1996) 점에서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의 남녀차이는 없는 것으로 시사된다. 또래관계기술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또래관계기술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에서도 주도성, 협동/공감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척도의 개발 논문인 양윤란과 오경자(2005)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는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주도성과 협동/공감 요인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주도적이고 협동적이며 공감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관계를 더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또래관계능력을 더 많이 발달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우울, 정서인식과 표현, 또래관계기술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이들 모든 요인들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그리고, 우울과 정서인식 및 표현 간의 상관에서 우울의 각 하위 요인들은 정서인식 부족 요인과의 상관이 우울의 각 하위 요인들과 정서표현 부족 요인과의 상관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울과 자신의 정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능력 간의 관련성이 우울과 자신의 정서를 정확히 표현하는 능력 간의 관련성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인식의 어려움은 우울, 불안 등의 정서 문제를 시사하는데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정서 표현에 대해서는 King과 Emmons(1990)에 의하면 정서 표현성과 정서 표현 감등을 구분하고, 하위 영역으로 부정적 정서 표현, 긍정적 정서 표현, 친밀감 표현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

서도 그 하위 영역별로 각기 다른 정서 표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정서 표현의 부족 요인 하나로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긍정적인 정서 표현인지, 부정적 정서 표현인지에 대해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서표현은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일부 동양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기도 하며, 일부 문화권에서는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반드시 내적인 정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Markus & Kitayama, 1991).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대사회로 오면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주장적인 모습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부적응적인 정서 표출이 아니라 적응적인 방식의 정서 표현은 자신과 타인의 상호호혜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동양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견해가 서구 문화권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넷째, 우울의 하위요인 중 신체적 증상 및 부정적 기분 요인과 또래관계척도 간의 상관성이 우울의 다른 하위요인들과 상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신체적 증상이 대인관계 기술과의 관련성이 다소 적음을 나타낸다. 신체적 증상과 정서 인식 및 표현의 어려움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은 많이 있어 왔으나(Penza-Clyve & Zeman, 2002; 강상현, 손정락, 2004; 신현균, 2000), 신체화 증상과 대인관계 기술 간의 관련성은 낮은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현균(2006)의 연구에서 신체적 증상과 사회성 기술 및 또래 수용과 관련성이 매우 낮으며($r = -.19 \sim -.24$), 본 연구의 각 하위요인별 상관에서도 신체적 증상과 또래관계척도 요인들 간의 상관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그러

한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다섯째, 우울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이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의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은 우울과 또래관계기술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작용을 하였다. 즉, 우울은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과 또래관계기술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의 부족은 초등학생의 또래관계문제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우울을 겪는 초등학생이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의 부족이 또래관계를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이 대인관계를 어렵게 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Hammen, 1990; 김현진, 한종철, 2004; 윤현수, 오경자, 2004)과 일치하며, 아동기의 또래관계를 어렵게 한다는 연구들의(김아영, 이명희, 2008; 박은조, 2000)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또래관계의 기제로 정서인식 능력과 정서 표현 능력을 주장한 연구결과들((Denham, Zoller, & Couchoud 1994; Salovey, Brackett, & Mayer, 2004; Salovey & Mayer, 1990; 김선주, 2002; 심혜숙, 왕정희, 2001; 권진희, 2006)을 지지한다. 자신이 느끼는 정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이를 적절히 조절하여 표현하는 것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관심사에 대한 자각을 증진시키고,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가용하게 하는 등 대인관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우울과 또래관계 간의 관계에서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의 매개 효과는 나타났으나,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을 통한 간접 경로뿐만 아니라

우울과 또래관계 간의 직접 경로를 추가하였을 때 더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이는 우울과 또래관계 간의 관련성에 있어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을 통한 설명량 이외에 우울이 또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울이 정서인식과 표현을 어렵게 만든다는 기존의 연구들(Feldman, White & Lobato, 1982; Goleman, Kraemer & Salovey, 1996; Reichenbach & Masters, 1983; Williams, Watts, MacLeod, & Mathews, 1997; 류경희, 오경자, 2008; 배도희, 조아라, 이지연, 2004) 지지하고 있으나, 우울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부분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울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기존의 연구에서 나아가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이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한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의 차이에 의해 또래관계에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우울 아동을 위해 정서 인식 및 표현 능력의 향상을 통해 또래관계 개선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우울의 하위 요인 중 신체적 증상관련 요인을 제외시켰을 때 적합도 지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우울의 하위 요인 중 신체적 증상 및 부정적 기분 요인과 또래관계기술의 각 하위요인 간의 관련성이 우울의 다른 하위 요인들(부정적 자아상, 대인관계문제)보다 낮았다는 점과 신체적 증상이 또래관계 기술 및 또래 수용과 관련성이 매우 낮다는 연구 결과(신현균, 2006)를 고려할 때, 신체적 증상이 우울의 다른 하위 요인들보다 또래관계기술을 설명하는 부분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우울이 또래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이 부분매개하고 있으며, 우울의 하위요인 중 신체적 증상은 또래관계와의 관련성이 낮아 이 요인을 제외시킨 모형인 대안모형 2가 우울, 또래관계,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관계기술에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또래관계기술이 더 높으며 이러한 결과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대인관계를 더 중시하여 그러한 능력을 개발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밝혀내었다. 둘째, 아동 후기인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우울과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에 있어서 남녀의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우울이 또래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이 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우울한 아동의 원활한 대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서인식과 표현을 향상시키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후 우울 아동을 위한 개입에서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알고 이를 적절히 표현하는 것을 연습시킨다면 우울 아동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서행동 장애 아동의 치료 교육적 접근에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지적하고 후속 연구를 제안하자면, 첫째 본 연구의 설계상 횡단 연구이므로 우울, 정서인식 및 표현, 또래관계기술 간의 인과관계나 선후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단 연구가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4-6학년의 아동 후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1-3학년 아동과 중학생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 다양한 연령 집단을 피험자로 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

을 측정하기 위하여 모두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우울과 정서인식 및 표현의 경우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내적 상태를 보고해야한다는 점에서 자기보고식 척도가 적절하겠지만, 또래관계의 경우에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라 보고할 가능성이 있어 자기보고 이외의 또래보고나 교사보고, 실험적 접근 등의 대안적인 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한다면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상현, 손정락 (2004). 사이코드라마가 대학생의 감정표현불능증, 신체화 증상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 : 건강*, 9(2), 243-263.
- 권성은 (2003). 초등학생의 정서 지능과 학업 성취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진희 (2006).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표현성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이명희 (2008).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만족, 우울경향,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구조와 학교급간 차이. *교육심리연구*, 22(2), 423-441.
- 김은경, 양재원, 정유숙, 홍성도, 김지혜 (2005). 아동 및 청소년에서 소아 우울 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의 요인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3), 693-707.
- 김선주 (2002). 유아의 정서지능과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오경자 (1992). 발달적 관점에서 본 아동 및 청소년기 우울증상. *소아 청소년정신의학*, 3(1), 117-128.
- 김현진, 한종철 (2004). 대학생의 우울 취약성과 자의식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77-294.
- 류경희, 오경자 (2008). 우울감이 얼굴표정 정서인식에 미치는 영향. *감성과학*, 11(1), 11-21.
- 배도희, 조아라, 이지연 (2004). ADHD아동과 우울한 아동의 얼굴표정 및 음성을 통한 비언어적 정서인식능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3), 741-754.
- 박은조 (2000). 중학생의 우울성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민섭, 김민경 (1994). 아동기 우울증의 평가.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5(1), 12-27.
- 신현균 (2000). 부정적 정서, 감정표현불능증, 신체감각 증폭지각, 및 신체적 귀인이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 매개모델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7-32.
- 신현균 (2006). 아동의 신체증상경험과 생활사건, 우울, 불안 간 관계 및 자기개념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77-96.
- 심혜숙, 왕정희 (2001).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 문제해결력과의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63-175.
- 양윤란, 오경자 (2005). 또래관계기술 척도의 개발: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용.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4(4), 961-971.
- 우희정, 최정미 (2004)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5(4), 191-200.
- 윤현수, 오경자 (2004). 우울의 유형에 따른 대인표상과 대인관계문제의 특성-성취지향적 우울 집단과 관계지향적 우울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577-594.
- 이양현, 임효덕, 이종영 (1996). *한국관 20항목*

- Toronto 감정표현불능증 척도(TAS-20K)의 개발과 타당도. *신경정신의학*, 35(4), 888-899.
- 이연이 (2007). ADHD 성향 아동의 정서지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상 (2003). 정서표현갈등, 사회적 지지지각, 대처방식, 그리고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화 (1997). 정서의 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1(1), 117-140.
- 임지영 (2005). 한국판 Beck 아동용 우울척도의 개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3), 337-347
- 임진현, 이훈진 (2006). 우울-품행장애성향 청소년의 정서인식 및 정서조절.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4), 1141-1151.
- 장은진, 서민정, 정철호 (2001). 아동 우울에 관련된 요인 및 부모 우울과의 관계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2(2), 245-255.
- 조수철, 이영식 (1990). 한국형 소아 우울 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 943-955.
- 한유진 (2006). 상호작용 상황에서 정서표현, 정서이해 및 정서조절 능력이 학령기 아동의 공격성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직, 간접적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15.
- 홍강의 (2005). 소아정신의학. 중앙문화사.
- 황인희 (2007). 정서인식의 정도와 정서조절양식이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gold, A., Costello, E. J., Erkanli, A.(1995). The epidemiology of depression in child and adolescent. In M. Goodyer (Eds.), *The depressed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al and clinical perspectiv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ronen, E. T. & Soininen, M. (2000). Childhood depressive symptoms predict psychiatric problems in young adults.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5(5), 465-47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3rd ed.*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TR.* Washington DC.
- Barrett, J. E., Barrett, J. A., Oxman, T. E., & Gerber, P. D.(1988). The prevalence of psychiatric disorders in a primary care practic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5(12), 1100-1106.
- Brimaher, B., Ryan, N. D., Williamson, D. E., Brent, D. A., Kaufman, J., Dahl, R.E., Perel, J., & Nelson, B. (1996). Childhood and adolescent depression: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 1427-1439.
- Browne, M. W., & Cudeck, R. (1989). Single sample cross-validation indices for covariance structur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4, 445-455.
- Cole, P. M., & Kaslow, N. (1988). Interactional and cognitive strategies for affect regulation :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childhood depression. In L. Alloy (ED.), *Cognitive*

- processes in depression*(pp. 310-343). New York: Guilford.
- Denham, S. A., Zoller, D.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emo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0*, 928-936.
- DePaulo, B. M. (1992). Nonverbal behavior and self-present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1*(2), 203-243.
- Emmons, R. A., & Colby, P. M.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947-959.
- Feldman, R. S., White, J. B. & Lobato, D. (1982). *Social Skills and nonverbal behavior*. In R. S. Feldman (Eds.), *Development of nonverbal behavior in childhood*. New York: Springer-Verlag.
- Goleman, D., Kraemer, D. T., & Salovey, P. (1996). Beliefs about mood moderate the relationship of stress to illness and symptom reporting.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41*, 115-128.
- Grusec, J. E. & Lytton, H. (1988). *Social Development*. Springer-Verlag.
- Hammen, C. (1990). Generation of stress in the course of unipolar affective disord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7*, 1112-1117
- Joiner, T. E., Alfano, M. S., & Metalsky, G. I. (1993). Caught in the crossfire: Depression, self-consistency, self-enhancement, and response of other.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2*, 113-134.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64-877.
- Kazdin, A. E. (1981). Assessment techniques for childhood depression : A critical appraisal. *Journal of American Academic Child Psychiatry, 358-375*.
- Kovacs, M., & Beck, A. T. (1977). *An Empirical-Clinical approach toward a definition of childhood depression in childhood : Diagnosis, Treatment and Conceptual Models*, edited by Schulerbrandt JG, Raskin A, Raven Press, New York.
- Kring, A. M., Smith, D. A., & Neale, J. M. (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dispositional expressivenes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motional expressivity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5), 934-949.
- MacKinnon, D. P., Warsi, G., & Dwyer, J. H. (1995). A stimulation study of mediated effect measur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0*(1), 41-62.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Nolen-Hoeksema S. & Girgus J. S. (1994). The emergency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during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15*, 424-443.

- Nowicki, S. Jr., & Duke, M. P. (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nonverbal communication of affect: The Diagnostic Analysis of Nonverbal Accuracy Scale.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18*, 9-35.
- Penza-Clyve, S. & Zeman, J. (2002). Initial Validation to the Emotion Expression Scale for Children(EESC).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4), 540-547.
- Reichenbach, I., & Masters, J. C. (1983). Children's use of expressive and contextual cues in judgement of emotion. *Child Development, 54*, 993-1004.
- Salovey, P., Brackett, M. A. & Mayer, J. D. (2004). *Emotional Intelligence: Key Readings on the Mayer and Salovey Model*. New York: National Professional Resources.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Salovey, P., Mayer, J. D., Goleman, S. L., Turney, C., & Palfai, P.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Washington, DC: APA.
- Williams, J. M. G., Watts, F. N., MacLeod, C., & Mathews, A. (1997). *Cognitive psychology and emotional disorders(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Ltd.

1차 원고 접수: 2010. 10. 14

수정 원고 접수: 2010. 11. 11

최종 게재 결정: 2010. 11. 12

The Relationship among Depression of Children,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xpression Abilities and Social Ability

Eun-Sil Choi

Hee-Jeong Bang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depression of children,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xpression abilities and social ability. Participants were 545 students(4th through 6th grades at elementary schools) who completed a packet of questionnaires measuring the Children Depression Inventory, the Emotion Expression Scale of Children and the Peer-Relational Skill Scale. Hypothetical model for the paths and role among constructs of interest was presented drawing on previous theoretical background and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not significant sex differences on the Children Depression Inventory and Emotion Expression Scale of Children. But, There was significant sex differences on the Peer-Relational Skill Scale. Second, the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xpression abilities mediate between depression and social ability partially. The mediation model of the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xpression abilities between depression and social ability indicates reasonable fit. Implic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presented.

Keywords: depression, emotional identification, emotional expression, social ability, mediation model